



서울 車보험 손해율 5% 오른 93%... 전국대비 5%p 높아

자동차보험 현황

지난해 서울 지역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평균 90%를 돌파했다. 2025년 서울 지역의 자동차보험(대인1·대인2·대물·자차) 손해율은 평균 92.88%로, 전년(87.65%) 대비 5.23%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국 평균도 웃돌았다. 전국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87.58%였다. 서울보다 5.30%p 낮았다.

서울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이 90%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지난 2022년 87.35%, 2023년 85.58%, 2024년 87.65%로, 점차 상승 곡선을 그렸으나 80%대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 손익분기점은 80%다. 손해율이 80%대를 넘어설 경우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돼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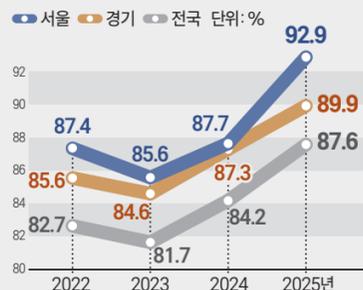
◆ 서울 車보험 손해율 평균 92.88%

2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분석한 '서울·경기·전국 자동차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 평균은 92.88%였다. 구체적으로 대인I 손해율이 82.5%, 대인II 95.8%, 대물 102.7%, 자차 90.5%로 분석됐다. 전년 대비 모두 상승세를 보였으며, 상승폭은 자차가 7.4%p로 가장 컸다. 대인II(6.8%p), 대물(4.9%p), 대인I(1.8%p)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증가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지난 2023년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전년 대비 1.77%p 감소한 뒤 2024년 2.07%p 상승하며 반등세로 돌아섰다. 그러다 지난해 5.23%p로 급등하며 상승폭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전국 손해율과의 역전 현상도 관측됐다. 전국 평균 손해율은 87.58%로, 서울

지역별 자동차보험 손해율



통상적 손해율 손익분기점 80% 넘어서면 손보사 수익성은 악화

車보험 가입차량 총 1903만대 국산 1601만대, 외제 302만대 서울에 전국 외제차의 22%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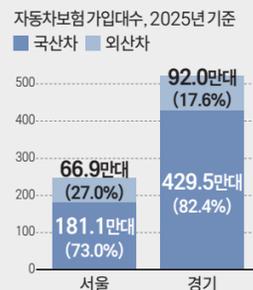
60대 차보험 부보대수 5.6% 증가 30·40대 가입자수는 1%대 감소

보다 5.30%p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의 대인I 손해율이 79.4%, 대인II 82.6%, 대물 93.7%, 자차 94.6%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 대인·대물 평균 손해율이 서울보다 3.1%p~13.1%p 낮았다. 단, 전국 자차 평균 손해율은 서울보다 4.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권 평균 손해율은 89.93%를 기록했다. 대인I 손해율 78.8%, 대인II 88.0%, 대물 99.9%, 자차 93.0% 순이다. 경기권의 대인I과 자차의 손해율은 전국보다 낮은 반면, 대인II와 대물은 각각 5.4%p, 6.2%p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를 비교하면, 경기권 손해율이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율 역시 대인I 기준 서울(5.3%)이 경기(4.9%)보다 높았다. 다만, 사고 1건당 손해액은 경기권이 399만9837원으로, 서울(387만5517원)보

지역별 국산·외산차



다 많았다. 경기 지역에서 대형 사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외제차 경기 집중도 서울보다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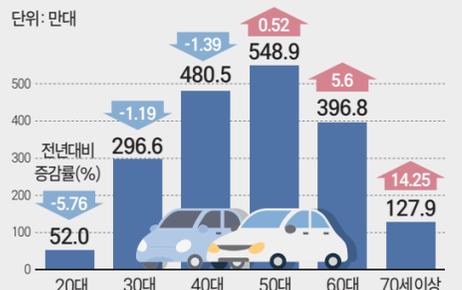
지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국 차량은 총 1902만9148대다. 이 가운데 국산 차량은 1600만9382대(84.13%), 외제차는 301만9766대(15.8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 국산차가 181만1260대, 외제차가 66만8913대가 가입됐다. 전년 대비 국산차는 1만8538대 감소한 반면, 외제차는 1만4782대 증가했다. 외제차로 갈아탄 수요가 많았던 셈이다. 경기의 경우 국산차가 429만5182대, 외제차가 91만9664대 등록됐다. 국산차와 외제차 모두 전년 대비 각각 4만7833대, 3만114대씩 증가했다.

서울에는 전국 외제차의 22.15%가 등록돼 있다. 경기의 경우 전국 외제차의 30.45%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외제차 비중이 높은 셈이다.

지난해 중형 차량 보험 가입률도 두드러졌다. 전국에 등록된 중형차는 583만1416대로 전년 대비 5만3014대(0.9%) 줄었다. 다인승 차량 감소율(0.42%)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감소세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서울 중형차는 84만5982대 → 83만4461대(-1.36%)로 감

연령별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소했다. 경기권에서는 159만2063대 → 158만6382대(-0.36%) 줄었다.

소형차 수요는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국에 등록된 소형차 수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637만9954대 → 666만3159대 → 690만2037대로 지속 증가했다. 대형차 역시 지난해 421만7511대로 전년보다 3만6652대 증가했다.

◆ 차보험 가입자, 60세 이상 늘고 3040 감소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증가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60~69세 전국 자동차보험 부보대수는 396만8397대로 전년 대비 21만256대(5.59%) 증가했다.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이다. 70세 이상은 127만8872대로 같은 기간 15만9479대(14.25%) 상승해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단, 30·40대 보험 가입자 수는 감소했다. 특히, 40대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집중됐다. 40~49세 이하 자동차보험 부보대수는 480만4972대로 같은 기간 6만7988대(-1.39%) 감소했다. 30~39세 이하 연령대 역시 296만6413대로, 3만5690대(-1.19%) 줄어 들었다. 20~29세 이하의 52만3588대로 3만1278대(-5.67%) 감소했다.

서울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2030대가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총 45만4630대로 집계됐

다. 전년 대비 2만1545대(4.52%)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68만8748대로, 같은 기간 3만38대(4.56%) 증가했다.

한편, 수도권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이 가장 많은 연령은 50~5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50대 부보대수는 68만2491대, 경기 지역에서는 148만811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전국, 경기권에서는 50대가 각각 85.8%, 87.7%로 타 연령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단, 서울 지역에서는 70세 이상이 88.6%로 손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60~69세가 89.1%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50대의 손해율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70세 이상 손해율은 지난해 88.5%에서 지난해 88.6%로 소폭 상승한 가운데 50대 손해율은 82.8%에서 89.4%로 크게 뛰었다. 그간 손해보험사들이 주 고객층으로 노려왔던 50대를 중심으로 리스크 구간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관리 및 요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남성이 보험사에 가입한 차량은 1370만1790대로 전년보다 12만4626대 증가했다. 동시에 여성의 경우 532만7358대로 같은 기간 8만8985대 늘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정반대의 현상이 관측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남성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180만1676대로, 같은 기간 4884대 감소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 67만8497대로 같은 기간 1128대 증가했다.

손해율은 전국 기준 남성(87.7%)이 여성(92.9%)보다 5.2%p 낮았다. 서울 기준으로는 남성(90.9%)이 여성(99.8%)보다 8.9%p 낮았다. 경기권에서는 남성(90.1%)과 여성(96.5%)의 손해율 차이가 6.4%p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서울지역 생명·장기보험 가입률 '하락'... 경기도는 '상승'

생명·장기손해보험 현황

서울·경기 생보 가입률 '동반 하락'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은 '동반 상승' 서울 생보 유지율 전국보다 높아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44)는 지난해 말 부모 간병비와 자녀 병원비가 겹치면서 가족 보험을 다시 점검했다. 기존에는 "실손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컸지만, 실제 지출을 겪고 나니 질병·상해 보장과 생명보험 계약 유지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A씨는 보험설계사 상담과 함께 자신이 사는 지역의 보험 가입·유지 흐름도 찾아봤다고 한다.

그는 "가입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오래 유지하는 사람이 많은지가 더 현실적인 지표처럼 느껴졌다"며 "서울은 가입률이 최근 조정됐다는 얘기도 있지

만, 유지율은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점에 눈에 들어 왔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기준 서울·경기지역의 생명·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이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다. 서울은 전년 대비 하락했고 경기도는 상승했다. 하지만 종목별로 보면 두 지역 모두 생명보험 가입률은 악화되고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은 높아지는 공통 흐름을 보였다. 생명보험 유지율은 서울·경기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 서울 ↓ 경기 ↑...전체 가입률 엇갈려

25일 메트로신문이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서울·경기지역 생명·장기손해보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생명·장기손해보험 가입자는 3989만명, 가입률은 77.1%로 집계됐다. 서울은 가입자 721만명, 가입률 76.8%로 전국 평균보다 0.3%포인트(p) 낮았다. 경기도는 가입자 1050만명, 가입률 75.8%였다.

특히 전년과 비교한 흐름이 갈렸다. 서울 가입률은 2023년 78.6%에서 2024년 76.8%로 1.8%p 낮아졌지만, 경기도는 같은 기간 75.4%에서 75.8%로 0.4%p 상승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가입 흐름은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기존 흐름이 유지됐다. 모든 지역에서 여성 가입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2024년 기준 서울은 남성 76.3%·여성 77.3%, 경기도는 남성 74.3%·여성 77.3%, 전국은 남성 76.2%·여성 77.9%로 나타났다.

◆ 종목별 '생보 악화·장기손보 강화'

전체 가입률의 방향이 서울과 경기에서 달랐다면, 종목별 흐름은 오히려 비슷했다. 서울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2023년 65.3%에서 2024년 60.7%로 4.6%p 하락한 반면,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은 58.3%에서 58.7%로 0.4%p 상승했다. 서울 전체 가입률 하락 배경에 생명보험

가입률 조정이 크게 작용한 셈이다.

경기지역도 같은 방향이었다. 생명보험 가입률은 57.0%에서 56.9%로 소폭 낮아졌고,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은 64.4%에서 65.5%로 1.1%p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도 생명보험 가입률은 59.0%로 보험,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은 64.0%에서 64.9%로 상승해 '생보 정체·장기손보 확대' 흐름이 확인된다.

지역 구조 차이도 분명했다. 서울은 2024년에도 생명보험 가입률(60.7%)이 장기손해보험 가입률(58.7%)보다 높았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 이외 지역은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이 더 높았다. 보험개발원도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의 종목별 가입률 구조가 다르다고 짚었다.

◆ 유지율은 서울·경기 모두 전국 상위 생명보험 유지율의 경우 서울은 13회차 유지율(87.8%)이 전국 평균(87.4%)보다 높고, 회차가 경과할수록 그 차이가 벌어

졌다. 경기 역시 서울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치를 보면 2024년말 기준 생명보험 유지율은 서울 ▲13회차 87.8% ▲24회차 71.4% ▲37회차 63.5% ▲49회차 57.2% ▲61회차 47.4%였다. 경기도는 ▲87.5% ▲71.7% ▲63.1% ▲56.6% ▲46.4%로 집계됐다. 전국은 ▲87.4% ▲71.1% ▲62.5% ▲55.7% ▲45.7%로, 서울·경기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서울의 상대 우위가 장기회차로 갈수록 더 뚜렷했다.

연령별로는 61회차 기준 20대 유지율이 가장 낮고, 9세 이하가 가장 높았다. 서울은 ▲20대 42.1% ▲9세 이하 66.3%, 경기도는 ▲20대 41.5% ▲9세 이하 61.1%, 전국은 ▲20대 40.9% ▲9세 이하 60.5%로 집계됐다. 사회초년층의 보험 유지 부담과 아동 보장 계약의 상대적 유지 특성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셈이다.

/김주형 기자 gh471@